

# 일본에서 인기 높은 한국드라마의 연애스토리: 일본의 연애스토리와의 비교

Love Stories in Korean TV Series which are popular in Japan: Comparison  
between Love Stories in Korean TV Series and Japanese TV Series

나고마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문화콘텐츠학과

Mari Nago(kouta3625@khu.ac.kr)

## 요약

근래 일본에서 TV 드라마 속의 연애스토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기 높은 한국드라마의 연애스토리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연애스토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일본작품의 주인공은 평범한 남녀가 많았고, 연애과정의 갈등은 인물·환경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개인의 생각 속의 갈등도 겪게 하였다. 사랑의 고백은 한국작품보다 심플한 표현을 사용하며 “좋아한다” ‘사랑한다’도 말하지 않은 남녀도 있었고, 사랑의 위기일 때도 상대에 대한 집착행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맺어지지 않는 결말도 묘사되어 있었다. 한편 한국작품의 주인공은 남녀 간 격차가 있는 입장이 많았고, 갈등도 환경 차이, 병, 연적 등의 환경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모든 남녀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함은 물론 일본작품보다 열렬한 애정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위기일 때도 모든 남자가 물러서지 않고 사랑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모두가 행복하게 사랑이 결실되는 결말이 그려졌었다.

■ 중심어 : | TV 드라마 | 한국드라마 | 연애스토리 | 한국드라마대상 | 한일 비교 |

##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love stories in Japanese TV series are decreasing. Comparing this with Korean popular TV series in Japan, it was found that Korean TV series have the following differences. In the Japanese series, the main characters were mostly from common origin. The conflicts within each relationship stage illustrated the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and their surroundings, as well as the conflicts which commonly arise in real life, that with the self. Confessions of love in the Japanese series used simpler expressions. Some couples did not even say “I love you. Further, when love was threatened, rarely was deep attachment shown. There were even cases where the main characters did not end up as a couple. On the other hand, there often existed a class differenc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main characters in the Korean series and conflicts mostly arose from differences of environment, illness, love rivals, and etc. Every couple verbally confessed their love and they used more passionate expressions of love than in the Japanese series, and when love was threatened no man backed down and each showed his deep attachment. Finally, there were happy endings for everyone even after the many complications.

■ keyword : | TV Series | Korean Series | Love Stories | Korean Best Series Award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접수일자 : 2014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27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26일

교신저자 : 나고마리, e-mail : kouta3625@khu.ac.kr

## I. 서론

일본에서는 2004년에 “겨울 연가”를 비롯해서 한국드라마가 굉장한 붐을 일으킨 후 현재까지 꾸준히 중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왔다. 물론 현재는 2000년대 중반만큼의 화제성은 없지만 한국드라마가 하나의 장르로 고정되어 특정 팬 층을 형성했다. 2013년에 일본의 한류10주년실행위원회가 기념사업으로서 “한국드라마대상”이라는 공식 사이트를 열고 시청자 투표에 의한 인기 작품, 인기 남녀 배우의 랭킹을 발표했다. 이 랭킹의 상위 작품은 한국에서 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고 상위 작품에는 ‘러브 코미디(국내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되는 코미디 요소가 강한 연애스토리가 많았다. 또, 상위 10위권 내에는 국내에서 평균시청률 30%를 상회한 작품은 ‘내 이름은 김삼순(2005)’ 하나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청률 10%대 작품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는 한국드라마 팬들의 취향을 일본드라마가 충족시키지 못 하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연애스토리를 일본 연애스토리와 비교 분석하여, 상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이끌리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일본인이 인식하는 한국드라마의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지만, 시청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분석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선택율이 높은 설문 항목으로 인한 이미지(예를 들어 ‘순수함’ ‘가족적’ ‘친밀함’ 등)나, 인터뷰로 인한 한국드라마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도출 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한국드라마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애스토리에 주목하여 일본 연애스토리와 어떤 점에서 상이한지를 스토리 진행과정을 따라 검토했다. 그들이 선호하는 스토리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드라마 콘텐츠의 선택, 개발 등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것이다.

이하 II.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스토리 분석에 앞서 III.IV.에서 일본에서 인기 높은 일본드라마와 한국드라마의 장르 경향을 파악한다. 이어 V.에서 분석을 다루고, VI.에서 최종 정리를 한다.

## II. 선행 연구

### 1 일본의 TV 시청경향에 관한 연구

먼저 일본의 TV 시청자 층과 시청경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서 한국드라마 팬이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한다.

세키네(關根,2011)는 NHK여론조사 결과로부터 근래의 TV 시청자 층과 시청경향에 변화가 보인다고 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중 전혀 TV에 접하지 않는 자가 증가하여 하루의 시청 시간도 고년 층에서 증가, 젊은 층에서 감소했었다[1].

아베(安部,2009)에 의하면 TV 시청 방식도 40대는 프로그램 편성표를 봐서 선택하는 사람이 50%에 육박하지만, 20대 전반은 29%에 지나지 않았다. 대신 ‘리모콘을 조작하며 찾아 본다’ ‘우연히 보고 적당히 바꾼다’를 선택한 20대는 40대보다 많았다. 또 20대 여성이 TV에서 떨어진 원인으로 ①시간·정신적인 여유의 감소 ②TV 콘텐츠 시청 욕구의 감퇴를 제시, ③콘텐츠 시청 욕구의 감퇴 원인이 1)드라마에의 동경 상실, 2)콘텐츠 지향의 분산화, 3)화제성의 경감에 있다고 하였다. 그 중 1)드라마에의 동경 상실이란 1990년대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이 붕괴되면서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허구’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다[2].

하야시(林,2005)에서는 TV드라마 시청에 있어서 주변적인 입장이었던 중 고령 여성의 시청태도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중래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가족이 택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스타일이 대표적이었고 채널 주도권은 남편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TV방송국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경제력도 없고 유행 주도자도 되지 못하는 중 고령 여성 취향에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2000년의 NHK조사에 의하면 주변적인 시청을 해온 여성 사이에도 시청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혼자 시청하기를 원하는 여성이 현저히 증가했었다. 하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겨울연가”를 70%의 여성이 혼자서 시청했었고 60%의 여성이 반복 시청을 했었다. 그들은 연애소설을 혼자 읽는 것과 같이 반복 시청하면서 감정의 발로를 찾는다는 일종의 심리요법적인 기능을 드라마에서 찾아냈었다. 감정을 억제·관리하

는 일상생활을 보내는 중에서도 특히 ‘울다’라는 감정행위를 목적화 할 수 있는 한국 연애드라마를 즐기게 됐다는 것이다[3].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선호되는 지에 관해서는 아베(安部2009)를 참고로 하겠다. 아베는 드라마 총족의 카테고리로서 1)인물への 호감, 2)카타르시스, 3)공감, 4)학습을 제시했다. 그 중 2)카타르시스는 억압에서 해방되거나 감정이 정화되어 세련된 것을 뜻하고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시청 동기로 ‘웃고 즐기고 싶다’ ‘기분 전환·리랙스하고 싶다’ ‘자극을 받고 싶다’ 등이 해당된다. 2)공감이란 시청자의 감정이 등장인물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감동하고 싶다’는 동기가 이에 해당된다. 2008년도에 20~49세 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아베(安部)가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는 드라마에서 ‘가벼운 오락’ ‘기분 전환’이라는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젊은 층 일수록 비율이 떨어졌다. 2007년도 연간 시청률 2위인 ‘갈릴레오(매회 완결형의 사건·추리 스토리)’의 시청 동기에 있어도 20대의 70% 이상이 카타르시스를 위한 시청동기를 선택했고 공감을 위한 동기를 택한 사람은 6%에도 미치지 못 했다[2].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20~30대의 TV와의 괴리가 진행됨에 따라 돌발적이거나 막연하게 시청할 때도 즐길 수 있는 1회성 및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킬 만한 프로그램이 증가됐다. 한편으로 예전에 주변적인 시청자였던 중 고령 여성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혼자 즐기는 시청방식을 원하게 되어 감정에 몰입해서 보는 한국드라마는 그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알 맞는 콘텐츠가 되어 있다.

## 2. 일본인의 한국드라마에 대한 인식

일본인의 한국드라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는 유사한 키워드가 보인다. 유승근(2009)는 한국인과 일본인 대상자를 젊은 층과 중 장년층으로 분류하여 상대국 콘텐츠에 대한 수용 특성과 인식을 알아내기 위해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장년층은 한국 드라마의 ‘순수한 사랑’과 ‘청순함’에 매료되었다고 하며, 일본의 젊은 층은 ‘이해가 용이’하고 ‘예측이 가능’한 면과 ‘가

족을 소중하게 묘사’하는 점에 호감을 가졌다고 했다[4].

채지영(2010)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한국드라마에 대한 ‘가족적’ ‘순수한’ ‘서정적’ ‘친밀한’ ‘비폭력적’ 이미지는 일본이나 미국 드라마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 ‘가벼운’ ‘화려한’ 이미지는 약하게 나타났고, ‘과장된’ 이미지는 한미일 3국 드라마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5].

김준숙(2006)에서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드라마의 인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비현실적’이지만 ‘감동적’이고 ‘고전적’이라는 반응이 확인됐다. 또 ‘순애보적’이고 ‘만화적’인 부분이 일본드라마와의 차이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6].

‘비현실적’이라는 특징은 미우라(三浦2007)에서도 지적됐다. 미우라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드라마의 매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드라마 애호가인 인식하는 매력으로 ‘의외의 전개(있을 수 없는 뒤집힘이나 의외의 결말)’ ‘한의 심정’ ‘연기력’ ‘강함’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의 심정을 가지고 강렬하게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에 공감을 가진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7].

한국드라마가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강한’ 매력에 대해서는 모기(茂木2012)와 히야마(檜山2011)도 언급했다. 모기(茂木2012)에서는 일본은 지나치게 풍족해져서 남자가 초식화(草食化)되고 끈기를 가지고 성공에 이르는 이야기가 현실감을 못 가지게 됐다. 그래서 한국드라마의 등장인물의 ‘강렬한’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했다[8].

히야마(檜山2011)는 한국드라마를 많이 취급하는 일본 TV방송국을 취재한 리포트이다. 한국드라마가 시청자를 유인하는 요인에 대해 BS일본TV는 ‘알기 쉬운 사랑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감정 몰입이 쉽다’는 점과 시청자가 ‘끌리는 요소’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BS아사히는 드라마에서 비쳐지는 한국인의 ‘강하고 강렬한’ 점이나 ‘가족을 소중히 하는 문화’ 등을 지적했다[9].

아베(安部2011)에서는 일본의 한류는 현재 러브 코미디(로맨틱 코미디) 중심인 ‘제3차 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미남이시네요”가 이 붐의 계기가 된 작품이고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약간 유치하지만 어른에게도 꿈을 꾸게 해준 작품이라고 평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장면

을 삽입할 때 여성은 설레게 된다는 정석대로 연출하여 현실감보다 설렘을 원하는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논했다[10].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는 ‘순수함’ ‘가족적’ ‘비현실적’ ‘알기 쉬움’ ‘강함’ ‘설렘’ 등의 키워드가 산재하면서 서로 유사한 한국드라마상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애스토리의 차이점을 스토리 진행 과정을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와 더불어 선행연구의 키워드가 연애스토리 속의 어떤 장면이나 언행을 반영한 것인지도 언급하려고 한다.

### III. 일본의 인기 드라마의 경향

최근 10년간 일본 드라마 속의 연애 스토리는 서서히 감소해 왔다. 2004~2013년도의 평균 시청률 상위 10위권 내 드라마 중 연애 스토리가 포함되는 작품 수의 추이를 [표 1]에 제시했다[11]. 여기서 말하는 연애스토리란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되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에서 갈등을 거쳐 결말까지가 묘사되는 스토리를 뜻한다. 단지 호감을 가지는 경우에는 연애 스토리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2000년도 말경부터 연애스토리는 일본 TV 드라마의 주된 요소가 아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상위 10위권 드라마 중의 연애 스토리의 수

연도	연애스토리(개)	작품 명
2004	4	프라이드, 라스트 크리스마스, 오렌지 테이즈, 사랑하는 그대에게
2005	3	전차남, 꽃보다 남자, 슬로 댄스
2006	2	노다메 칸타빌레, 결혼 못 하는 남자
2007	4	꽃보다 남자 2, 파견의 품격, 프로포즈 대작전, 아름다운 그대에게
2008	2	장미가 없는 꽃가게, 라스트 프렌즈
2009	0	
2010	2	달의 애인, 반딧불의 빛
2011	2	JIN 2, 내가 연애를 못 하는 이유
2012	0	
2013	1	라스트 신데렐라

“Audience Rating TV”의 평균 시청률에서 필자가 연애스토리만 발췌하여 작성(<http://artv.info/ar.html>)

대신 근래 드라마의 주된 요소로 증가해온 것은 사건을 둘러싼 추리, 추적, 재판이나 의료스토리이고, 2000년대 후반부터 상위 10위권 내의 5~7개의 작품을 차지했

다[표 2]. 게다가 [표 2]의 대부분(\*를 표시한 5개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매회 완결 형이고 연속적으로 시청하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다. 자신의 여유 있는 시간에 TV를 켜도 한번으로 사건 해결이나 수술 성공 등의 재미나 자극을 맛 볼 수 있는 작품이, 연애드라마 같이 연속적인 시청이 전제로 되어 있는 작품보다 인기가 있다는 상황이다.

표 2. 상위 10위권 드라마 중의 사건, 의료스토리의 수

연도	사건/의료계 스토리(개)	작품 명
2004	1/1	모래의 그릇*, 하얀 거탑*
2005	0/1	구명병동24시
2006	0/1	Dr.코토 진료소
2007	2/1	갈릴레오, SP, 의용2
2008	1/1	유성의 인연, 코드 블루-닥터 헬기 구급구명-
2009	5/2	MR.BRAIN, BOSS, 도쿄 DOGS, 키이나, 입장, 구명병동24시, JIN*
2010	3/2	입장, 신참자, 절대 영도, 팀 파치스타, 코드 블루-닥터 헬기 구급구명-
2011	3/2	수수끼끼 풀기는 디너 후에, BOSS, 유류 수사, JIN2*, DOCTORS
2012	5/1	열쇠가 잠긴 방, ATARU*, 럭키세븐, 스트로베리 나이트, DOCTOR X 삼색털 고양이 홈즈의 추리,
2013	2/3	갈릴레오, 리갈 하이, DOCTOR X, DOCTORS2, 구명병동24시

x/y:사건스토리의 작품 수/의료스토리의 작품 수  
 "Audience Rating TV"의 평균 시청률에서 필자가 사건, 의료스토리만 발췌하여 작성(<http://artv.info/ar.html>)

### IV. 일본 속의 한국 인기 드라마의 경향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드라마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도의 ‘한국드라마대상’에서 선정된 상위 10위권 내 작품을 사용했다[표 3][12]. 일본에서는 Video Research만이 지상파 TV의 시청률을 공표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주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 방영되어 시청률은 공표되지 않는다. [표 3]을 보면 첫 방송 시기는 2003년도의 “겨울연가”에서 2012년도의 “옥탑방 왕세자” “공주의 남자”까지 다양하지만 “공주의 남자(2012)” “장난스런 키스(2010)”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작품은 모두 2013년에도 재방송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이 작품들은 첫 방송 시기에 큰 상관 없이 현재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드라마 장르로서는 “겨울

연가”와 “공주의 남자” 이외 8개 작품은 모두 ‘러브 코미디’(국내의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되어 코미디 요소가 들어간 연애 스토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고 시청률 드라마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표 4]는 한국에서 2003년 이후의 평균시청률 10위권 내의 작품이다[13]. [표 4]의 작품은 모두 일본에서도 방영되었지만 ‘한국드라마대상’ 10위권 내에 들어간 작품은 “내 이름은 김삼순”뿐이다. ‘대장금’, “천국의 계단”은 30위권 내에 들어갔지만, “장미 빛 인생”과 같이 300위 중 235위에 머문 작품이나 “미우나 고우나”처럼 300위 안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도 있다. [표 4]의 작품에는 역사나 가족스토리도 많아, 연애스토리에 있어서도 가족문제가 얽혀서 주인공들의 연애가 보다 복잡한 구도 속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표 3]의 연애스토리는 주로 젊은 남녀의 연애에 초점을 집중시켜서 복잡한 가정 문제 등은 [표 4] 작품에 비해 덜 포함되어 있다.

표 3. '한국드라마대상' 상위 10위권 작품

순위	작품 명 (일본에서의 첫 방송 시기)
1	겨울연가(이하 “겨울”) (2003)
2	옥탑방 왕세자(이하 “옥탑”) (2012)
3	미남이시네요(이하“미남”) (2010)
4	공주의 남자(이하“공주”) (2012)
5	궁 (2006)
6	장난스런 KISS(이하“장난”) (2010)
7	성균관 스탠들(이하“성균”) (2011)
8	꽃보다 남자(이하“꽃보다”) (2009)
9	시크릿가든(이하“시크릿”) (2011)
10	내 이름은 김삼순(이하“김삼순”) (2005)

“한국드라마대상”의 작품상 (<http://hanryu10.jp/about/>)

표 4. 한국에서의 시청률 상위 작품(2003-)

순위	작품 명	한국드라마대상 순위
1	대장금 (2003)	20
2	파리의 연인 (2014)	48
3	주몽 (2006)	52
4	제빵왕 김탁구(2010)	66
5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	97
6	내 이름은 김삼순(2005)	10
7	미우나 고우나 (2007)	-
8	선덕여왕 (2009)	31
9	장미 빛 인생 (2005)	235
10	천국의 계단 (2003)	27

"K-MANIA" 평균 시청률 랭킹 30에서 필자가 2003년 이후의 작품을 발췌하여 작성 (<http://koread.tank.jp/>)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인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순수한’ ‘가족적’ ‘알기 쉬운’ ‘비현실적’ ‘강한’ ‘설레는’ 등의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키워드들이 [표 3]의 작품에 있어서 어떤 장면과 언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V. 인기 한국드라마와 일본드라마의 연애스토리 비교

### 1. 분석 방법의 이론적 배경

Syd Field(2012)에서는 영화를 비롯해서 영상으로 스토리를 전하는 룰에 대해 언급했다. 모든 스토리는 시작·중반·결말의 3막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각 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시작(상황설정): 주인공이 소개되어 드라마의 전체가 제시된다. 주인공의 직업, 사생활, 인간관계가 설정된다.
- 2) 중반(갈등): 목적 달성을 위해 주인공이 잇 따라 해결해야 하는 장애에 직면한다.
- 3) 결말(해결): 스토리가 해결되어 끝난다.

1)시작부분에서 2)중반부분 사이와 2)중반부분에서 3)결말부분 사이에는 스토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데 계기가 되는 사건(각기 Plot Point1, Plot Point2)이 발생한다. 또, 시청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것은 2)중반부분이고, 중반부분을 전후로 나누는 상황(Mid Point)이 일어난다. Mid Point는 허구의 최상(또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 주인공은 목적관을 지속하여 Mid Point를 맞이하지만, 이윽고 새로운 사건(Plot Point2)에 부딪쳐서 방향을 돌려 진실한 결말로 이어간다[14].

이러한 영상 스토리 구성의 틀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애스토리와 일본 연애스토리를 비교 검토했다. 비교 항목은 스토리 진행과정에 따라 ①남녀 주인공의 직업과 경제력 ②갈등요소 ③고백내용 ④집착 행동 ⑤결말이고, ①은 1)시작부분의 상황설정에 해당하

며 그 중 양국 작품의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요소이고, ②는 2)중반부분에서 직면하는 갈등의 종류로 나타나고, ⑤는 3)결말부분의 해결 상황에 해당된다. ③④는 TV 연애스토리의 주된 요소들이며 2)중반부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③은 2)중반부분의 가장 중심이 되는 Mid Point나 2)중반부분에서 3)결말부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Plot Point가 되기도 한다. 이들 5개 항목을 비교해서 어떤 주인공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떠한 결말에 이르는 스토리인지, 또 그들이 사랑을 전달하거나 사랑을 잃어버리려는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대략 파악할 수가 있다. 분석 자료는 ‘한국드라마대상’ 상위 10위권 내 드라마 중 사극과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 작품을 제외한 6개 작품과 일본에서 2011~2013년도에 방영된 일본드라마의 연애스토리로서 고 시청률 순으로 5개 작품을 선정했다. 한국드라마는 방송국 공식 사이트에서, 일본드라마는 동영상 유료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시청하며, 애매한 부분은 반복 시청하면서 분석했다.

## 2. 분석

### 2.1 남녀 주인공의 직업과 경제력

남녀 주인공 입장 중 양국 작품에서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직업이나 경제상황이다. 대상 작품의 남녀 주인공의 직업이나 신분을 [표 5]에 제시하여 두드러지게 부유한 경우와 가난한 경우는 직업란에 각기 ‘◎’ ‘×’를 표시했다. 한국 작품에서는 남녀 간의 입장에 격차가 있는 경우가 보다 많아 특히 남자는 모두가 부유하거나 화려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졌다. 하지만 여자는 사회적인 입장도 경제 사정도 어렵게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주인공 입장 차이가 연애 진도에 대한 갈등 요소가 되기 쉽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결합하게 되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인정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작품에서는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대부분 평범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고 시청자와 눈높이를 맞추도록 설정되어 있다. 단 직종은 기술계통을 비롯한 각종 전문직이 눈에 띄며 평범하면서도 자신의 일의 영역은 확고히 하는 입장을 보여줬다. 일본 연애스토리의 이러한 경향은 아베(200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허구’를 기피하는 시청자들의 취향을 반영

한 것이다. 현실에서는 연애 상대를 찾기조차 어려운 젊은이도 많아, 내각부 조사(2011)에서는 도시에 사는 20~30대 남녀 중 70~80%이상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안 했다고 답했다[15].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국드라마에 대한 ‘비현실적’ ‘순수한’ 이미지는 일본 작품과 달리 한국 작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입장 격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 양국 연애스토리 남녀 주인공의 직업과 경제력

한국 스토리	직업(◎ /×)		일본 스토리		직업(◎ /×)	
	남	여	연애	남	여	남
겨울	남	건축회사 대표이사	연애	남	여	조명기사
	여	인테리어회사 공동 운영		여	조명기사	
옥탑	남	왕세자 대기업 후계자 ◎	라스트	남	여	BMX라이더
	여	×		여	미용사	
미남	남	아티스트	벚꽃	남	여	유리 장인
	여	수녀 ×		여	병원장 부인	
궁	남	황태자	하늘	남	여	자위대원
	여	×		여	TV방송국 디렉터	
시크릿	남	백화점 사장 재벌 손자 ◎	SUMMER	남	여	사진가
	여	스턴트 우먼 ×		여	조리사	
김삼순	남	재벌 후계자 ◎				
	여	파티세				

### 2.2 갈등 요소

드라마에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필요하고 갈등 때문에 스토리에 긴장감이 생긴다. 갈등은 개인의 마음 속의 의견 대립에서나, 인물이나 환경 등 외적 존재와의 대립에서도 발생한다. 양국의 대상 작품에서 주인공 남녀의 연애 진도와 대립되는 요소를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했다 [표 6][표 7]. 단 주인공의 연애 진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요소는 취급하지 않았다. 양국의 갈등요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한국 작품에는 연적, 사고나 병, 부모의 반대 등 외적인 요소로 인한 갈등이 많았고, 일본 작품에는 연적의 존재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많고 그와 더불어 목표(꿈), 자신(自信), 배려, 두려움 등 개인의 내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연애스토리의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말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8]은 2000~2013년도에 있어 일본드라마 상위 10위권 내의 연애스토리에 보이는 갈등 요소들이다(최

고 시청률 기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외적인 갈등 요소가 많았고 그 중에도 연적과 병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많았다. 그런데 2000년대 말경부터는 연애스토리 자체가 감소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기 쉬운 내적인 요소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근래에는 자신의 목표나 꿈이 연애진도와 대립되는 스토리가 증가했다[16].

표 6. 한국 연애스토리의 갈등 요소

	외적인 대립 요소	내적인 대립 요소
겨울	1.사고로 사망 2.지역 상실 3.연적(남)의 존재 4.출생의 비밀 5.실명 압박	
옥탑	1.연적(여)의 존재 2.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기 3.과거로의 필수적인 귀환	
미남	1.연적(남)의 존재 2.연적(여)의 존재 3.부모와 얽힌 과거 문제	
궁	1.연적(남)의 존재 2.연적(여)의 존재 3.마음이 안 통함 4.환경에 부적응 5.음모로 인한 폐위 위기	
시크릿	1.환경의 차이 2.부모의 반대 3.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김삼순	1.연적(여)의 존재 2.착각에 의한 어긋남 3.부모의 반대	

표 7. 일본 연애스토리의 갈등 요소

	외적인 대립 요소	내적인 대립 요소
내가 연애할 수 없는 이유(이하"연애") (2011)	1.연적(여)의 존재	2.자신의 꿈
ラスト 신데렐라 (이하"ラスト") (2013)	1.남자한테 속았음	
겨울의 벚꽃 (이하"벚꽃") (2011)	1.상대가 기혼자(여) 2.남편의 방해 3.불치 병	
하늘을 나는 홍보실 (이하"하늘") (2013)	1.연적(남)의 존재 (착각)	2.일에 좌절 자신 상실 3.짐을 제거 하기 싫음
SUMMER NUDE (이하"SUMMER") (2013)	1.연적(여)의 존재	2.과거 버려진 트라우마

표 8. 일본의 연애스토리에서의 갈등 요소의 추이 (최고시청률 상위 10권 내 연애스토리)

연도	작품수	외적인 대립 요소	내적인 대립 요소
2000	4	병(2), 부모의 반대(1), 환경 차이(1), 연적(1), 조직(1)	조국에 대한 사명감(1)
2001	4	병(1), 연적(1),	연애 안하겠다는 신

연도	작품수	외적인 대립 요소	내적인 대립 요소
2002	4	임신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1), 가정문제(1), 연적(1), 오해(1), 미래 세계에서 사랑(1)	넘(1)
2003	4	병(1), 연적(2), 오해(1)	
2004	5	병(3), 연적(4)	자신의 목표(1)
2005	3	부모의 반대(1), 환경 차이(1), 오해(1),	용기 부족(1) 장래에 대한 불안(1)
2006	4	연적(1), 속았음(1), 조직(1),	자기 취향을 모른다(1) 혼자 생활의 궤적함(1) 자신의 꿈(1)
2007	5	병(1), 부모의 반대(1), 연적(2), 오해(1), 성격의 불일치(1), 남장(1)	파견사원의자존심(1)
2008	2	속았음(1), 남자의 폭력(1)	자신 부족(1)
2009	2	연적(2), 교착(1)	자신의 목표(1)
2010	2	연적(1)	자신의 목표(1)
2011	1	연적(1), 현대로의 귀환(1)	자신의 꿈(1)
2012	1	오해(1)	자신의 목표(1)
2013	2	연적(1), 속았음(1)	자신 상실(1) 상대에 대한 배려(1)

표 8은 최고시청률 기준이고, 평균시청률 기준인 (표1)(표7)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연대유행"을 참고로 필자가 정리 (<http://nendai-ryuukou.com>))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로 인한 갈등 묘사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 본다. [표 9]는 한국 작품 "옥탑"에서 여자 주인공 박하가 사고로 생명의 위기를 맞아 그의 애인 이각이 갈등하는 장면의 일부이고, [표 10]은 일본 작품 "연애"에서 여자 주인공 에미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며 애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장면이다.

표 9. "옥탑"의 갈등 장면

<p>이각: 남자 주인공, 박하: 여자 주인공, 대무: 사고를 낸 주범, 세나: 박하의 언니 및 사고를 낸 공범</p> <p>1.(저수지에서 이각을 죽이려는 의도로 달려온 대무의 차에 박하가 스스로 몸을 던져서 이각을 살려낸 직후) 이각:박하야! (일을 저지른 대무는 차에 세나를 싣고 도망간다) 이각: (뇌리에 과거에 겪은 비슷한 슬픈 장면이 회상된다) 박하야. 박하. 바..박하. 아..박하..아..박하야 (저수지 속에 뜨고 있는 박하한테 망연자실하게 향한다. 박하가 죽은 게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울며 다가간다) 이각: (정신없이 저수지 속에 들어가 박하를 살려내려고 한다) 박하야! 박하야! 박하야! 박하야! 박하야! 이각: 박하야! 박하야! 박하야! 박하야! 아니 된다. 박하야! 박하야! 아..박하야 아..박하야..아..박하야..(의식이 없는 박하를 안고 외친다)</p> <p>2.(이각이 세나를 병원으로 불러내 위독한 상태로 누워 있는 박하를 보여준다. 세나가 경악하며 병원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각이 달려가서 제지한다) 이각:세나씨 내 이야기 들어요, 박하 저대로 두면...곧 죽어요. 세나:(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이각: 차에 다쳤을 때 간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세나씨한테 전화한 것은 박하를 차로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하를 살려달라고</p>
---

부탁하는 겁니다. 박하의.... 언니잖아요.  
 세나: (당황하면서)...우리 그런 관계 아닙니다.  
 3.(간 이식이 성공하여 병실에서 박하가 깨어났다)  
 이각: 박하야. 박하야. 이제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박하: (천천히 눈을 뜬다) 저하는...괜찮아?  
 이각: 이 미련한 것. 이 와중에도 내 걱정이나. 난 너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말거라.  
 박하: (미소 짓는다)  
 이각: 앞으로 박하 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  
 박하: 흠...(미소 지으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이각: 이게 뭐냐?  
 박하: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이각: 약속 한다.(미소 지으면서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

표 10. "연애"의 갈등 장면

에미:여자 주인공(조명 기사), 유우:남자 주인공(조명 기사), 타모:선배  
 1(아외의 큰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준비하면서)  
 타모: 저런 연인들의 멋진 크리스마스를 돕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우리는.  
 에미: 타모씨, 로맨틱스트렸네요.  
 타모: 그럼. 사소하지만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도움.  
 에미: 의외네요.  
 타모: 요요기도 좋지만 우리 일은 뭐랄까 불빛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게 난 꽤 좋더라고  
 에미: 호응...(그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표정)  
 타모: 뭐야? 그래도 난 아무로 라이브처럼 큰 일이 하고 싶어?  
 에미: ...전.... (확실한 대답을 못 하는 표정)  
 2(에미는 애인 유우와 같이 행사 준비 중이다)  
 에미: 넌 거기(미국) 가면 어떤 일 하고 싶어?  
 유우: 응? 글썽 음,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여는 록 콘서트나 라이브? 여기랑은 스케일이 다르니까.  
 에미: 호응...  
 유우: 스타디움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듣고 싶어.  
 에미: ...응...(자신의 생각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표정)  
 유우: 그리고 이왕이면 엔터테인먼트 본고장에서 유행의 최첨단도 느껴보고 싶고 최신 기계들도 많이 써보고 싶고  
 에미: ...응...(애매하게 맞장구를 친다)  
 유우: 라스베가스 쇼같은 건 진짜 대박이야. 엄청 화려하면서 관객마음을 사로잡는 연출. 언젠가 그런 걸 하는 게 내 꿈이야.  
 에미: ....꿈?  
 유우: 그야 당연하지. 꿈도 없이 미국 왜 가?  
 에미: ....그렇지...(자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란 표정)  
 3(에미는 미국으로 안 가겠다는 결심을 전하러 먼저 떠나려는 유우를 만나러 공항으로 달려왔다)  
 에미: 유우!  
 유우: 후지이? 여긴 어떻게..?  
 에미: 미안해 유우. 나...너랑 미국에 못 가.  
 유우: 응? (놀란 표정)  
 에미: 나 겨우 알았어. 내가 비추고 싶은 건 친구나 동료 그리고 지금까지 날 지켜준 가까운 사람들이란 걸 알았어.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빛이 되고 싶어. 널...정말 좋아하지만 정말로 같이 가고는 싶은데 ...그래도 이 기분으로 널 따라가면 ...내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널 꿈을 좇고 있어. 사키나 마코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누군가의 꿈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길을 확실히 찾고 싶어. 그래서..미안해. 같이 못 가.

[표 9]와 같은 외적인 갈등인 경우, 상황정보가 다양하

게 제공되어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주인공의 갈등도 완화되기 때문에 갈등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상황전개에 따른 긴장감도 있다. 이에 비해 [표 10]과 같은 내적인 갈등 즉, 개인 속의 생각의 대립인 경우, 상황정보는 암시 역할을 하나 갈등과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주로 대사를 통해서 갈등내용이 설명되기 때문에 외적인 갈등에 비해 긴장감이 덜하여 정적인 인상을 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국드라마에 대한 ‘비현실적’ 이미지는 일어나기 드문 갈등 내용에도 찾아볼 수 있고, ‘알기 쉬운’ 이미지는 외적인 갈등요소가 많은 만큼 스토리전개나 인물의 심리상태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설정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1.3 고백 내용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연애스토리는 사랑의 고백 장면을 설정한다. 대상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표 11][표 12]에 정리했다. 한국 작품에서는 고백의 대표적인 멘트인 ‘좋아한다’ ‘사랑한다’를 남녀 모두 발언했다. “옥탑” “미남” “김삼순”의 경우 먼저 ‘좋아한다’를, 스토리가 끝나는 무렵에 ‘사랑한다’를 다시 전달하여 사랑이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단 “김삼순”은 여자가 줄라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함). 기타 고백 내용에서도 남자 주인공의 열렬한 발언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일본 작품에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달하지 않은 주인공들도 있다. 그 중 ‘벚꽃’의 남자 주인공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끔 고백하지 않기로 결심했었고(훗날 사체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 여자도 자신의 잔여수명을 알고 고백하지 않았다(사후 사진 뒷면에 여자가 적은 메시지 ‘사랑합니다’가 발견됨). 나머지 “라스트”의 여자, “하늘”의 남녀는 특별한 사정은 없지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기타 고백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 연애스토리에 비하여 심플한 표현을 사용하는 남녀들이 눈에 띄어 사랑 고백에 있어서 언어에 의지하는 정도가 한국 연애스토리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국드라마에 대한 ‘설레는’ ‘알기 쉬운’ 이미지는 일본 작품과 달리 한국 작품의 남자 주인공의 직선적이며 정열적인 고백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11. 한국 연애스토리의 고백 내용

작품	고백 내용	
	좋아하다 사랑하다	기타 고백 내용
겨울 (20)	남 좋아한다(7) 사랑한다(7)	이젠 안 보낼 거예요. 어디에도 누구한테도 안 보낼 거예요.
	여 사랑합니다 (10)	내 마음 가져갔으니까 나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옥탑 (20)	남 좋아한다(12) 사랑한다(19)	가슴이 쪼그라들고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하루 종일 미치는 줄 알았다(12)/영겁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할 것이다(19)
	여 좋아해(10) 사랑해(10)	나 너 좋아해...사랑해...
미남 (16)	남 좋아해(14) 사랑해(16)	딱 한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14) 계속 이야기해 줄 테니까 매일 매일 잘 들어(16)
	여 좋아해도 되겠습니까(13)	어이없고 기분 나쁘시지 않겠습니까?
궁 (24)	남 사랑합니다 (20)	마치 심장이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날마다 니가 궁금해지고 안 보면 보고싶고 그런 나 때문에 피식피식 웃음이 났어 바보처럼 말아야
	여 사랑한다(23)	내가 사랑하는 건 황태자가 아니라 그냥 너야
시크릿 (20)	남 사랑해(17)	어떤 놈도 사랑하지 말고 평생 나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
	여 나도 그쪽을 사랑했고(18)	니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어 살아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김삼순	남 좋아졌어(11) 사랑해(16)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 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꾸 날 괴롭혀(11) 말로 표현하는 거라 마음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데(16)
	여 좋아졌다(7)	가지마..지금 가면..지금 가면..

( )는 회 수

표 12. 일본 연애스토리의 고백 내용

작품	고백 내용	
	좋아하다 사랑하다	기타 고백 내용
연애 (10)	남 좋아해(10)	너가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여 좋아해(10)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라스트 (11)	남 좋아해(11)	이제 사쿠라씨가 없으면 살수 없어. 사쿠라씨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여	안 헤어질 거야.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11)
벚꽃 (11)	남	
	여	
하늘 (11)	남	2초 주세요.(키스한다) 갑시다(8)
	여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할게요(11)
SUMMER (11)	남 좋아해(11)	매일 나츠키를 생각했었어. 마지막에 본 그 날부터 쭉 지금도 나츠키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여 좋아하는 사람이... 이...(11)	겉이 나는 지도 몰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다시 사라지지 않을 까하고

( )는 회 수

1.4 집착 행동

주인공 남녀 중 한 사람이 떠나거나 교제를 거절했을 때, 또는 연적이 등장한 경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

했는지를 [표 13][표 14]에 정리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서로가 승낙한 이별은 취급하지 않았다. 표 중 굵은 글자로 표시한 것은 상대가 떠나거나 거절을 하거나 연적이 나타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은 행동이고, 이런 행동을 집착 행동이라고 명명하겠다. 2가지 표를 비교하면 한국 작품의 주인공들의 집착 행동이 눈에 띄며, 특히 6개 작품의 모든 남자 주인공이 좀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 작품인 경우 주인공 남녀 10명 중 2명의 남자에게서만 집착 행동이 보이며 나머지는 상대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방관했었다. 2000년대 말에 일본 매스미디어에서 20~30대의 ‘초식계 남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초식계 남자’란 모리오카(森岡2009)에 의하면 여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 배려심이 있는 남자이고 연애에 있어서는 자신도 상대도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17]. 우시쿠보(牛窪2008)에서는 최근 20~30대 여자가 초식계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70%의 20대 여자가 ‘함께 있어서 편한’ 남자를 선호하며 경제력이 있어도 ‘날 따라와’라는 타입의 남자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18]. 일본 작품의 남자 주인공의 집착 행동에서도 이와 상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국드라마에 대한 ‘강한’ ‘설레는’ 이미지는 한국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보여준 불리한 상황 속의 변하지 않은 사랑과 행동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13. 한국 연애스토리의 집착 행동

	장면	행동
겨울	8화:(남)사랑 고백하지만 여자는 거절함	(남)추궁 계속 사랑한다고 전함
	10화:(여)사랑하지만 약혼자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함	(남)보냄
옥탑	9화:(남)다른 여자와 교체	(여)방관
	13화:(여)남자와 오해 생겨 서울을 떠남	(남)찾아가서 데리고 옴
미남	6화:(남)다른 여자와 교체(위장)	(여)방관
	13화:여자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남) 다른 남자 앞에서의 행동을 견제
	15화:(여)부모 문제로 남자 곁을 떠남	(남)무대 위에서 여자를 찾아 데리고 내려와서 포옹함
궁	11화:(남)다른 여자와 키스한 사진이 보도됨	(여)추궁하고 싸우게 됨
	19화:(여)다른 남자와 사이 좋게 지냄	(남)견제의 방해
시크릿	7화:다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함	(남)방해함

	13화:(여자)남자를 안 만나려고 결심	(남) <b>찾아와서 밖에서 만나자고 외침</b>
김삼순	8화:(남자)전 애인에게 떠남	(여)방관
	12화:(여자)헤어지려고 산에 재출발하러 감	(남) <b>산으로 찾아옴</b>
	16화:(남자)오해로 인해 여자한테 거절당함	(남) <b>여자를 따라다니며, 용서가 될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림</b>

표 14. 일본 연애스토리의 집착 행동

	장면	행동
연애	1화:(남)다른 여자와 교제	(여)방관
	10화:(여)이별을 결심	(남)수용
라스트	10화:(여)남자한테 속았다고 알고 교제를 그만둠	(남) <b>몇 번 찾아가 애원</b>
	11화:(여)다른 남자와 같이 미국으로 떠나기를 결심	(남)방관
벚꽃	4화:(여)남자에게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함	(남) <b>여자 건강이 걱정되어 다시 찾아감</b>
하늘	4화:(남)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오해	(남)자신의 마음을 정리
	5화:(여)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지만 남자는 거절	(여)단념함
	9화:(여)남자에게서 떠남	(남)수용
	10화:(남)갑자기 이별을 고함	(여)수용
SUMMER	5화:(남)다른 여자와 교제	(여)떠남
	11화:(여)과거의 트라우마로 교제 거부	(남)기다리겠다고 함

1.5 결말

주인공들의 연애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표15에 정리했다. 한국 작품에서는 거의 모든 주인공들이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단 “옥탑”은 남자가 과거 세계에 돌아가야 했으므로 여자는 이별을 겪었지만 300년 후에 환생한 같은 남자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한편 일본 작품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결말이 보이며 사랑을 성취한 경우가 3개 작품이지만 그 중 1개 작품은 결혼을 하나 직장 때문에 남자는 지방, 여자는 도쿄에 살게 됐다. 남자의 직장에서는 3~5년 간격으로 전근이 불가피한 설정이므로 별거생활을 전제로 한 결혼이었다. 나머지 2개 작품 중 “연애”는 여자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고(사랑은 유효한 형태), “벚꽃”은 사별로 마무리됐다. 특히 “연애”는 타이틀인 “내가 연애할 수 없는 이유”의 이유가 여자의 일(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와 같이 일본 연애스토리는 사랑 성취나 결혼을 도달점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여성 시청자 취향을 반영하여 직업상의 목표도 포기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줬지만, 한

국 연애스토리 결말은 여성의 직업을 둘러싼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국드라마에 대한 ‘순수한’ ‘비현실적’ 이미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여 오로지 사랑을 이루는 연애이상주의적인 결말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15. 양국 작품의 결말

한국 스토리	결말 (♡:성취 / ↔:이별)	일본 스토리	결말 (♡:성취 / ↔:이별)
겨울	♡	연애	♡ ↔ 일을 우선 선택
옥탑	↔ / 환생한 남자와♡	라스트	♡
미남	♡	벚꽃	↔ 사별
궁	♡	하늘	♡ 결혼하나 직장 때문에 별거
시크릿	♡	SUMMER	♡
김삼순	♡		

VI. 정리

일본에서 2000년도 말경부터는 TV드라마 속의 연애스토리가 감소하여 연애와 상관이 없는 매회 완결형인 사건, 의료스토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드라마 중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6개 연애스토리는 어떤 면에서 상이점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물의 직업이나 경제 사정을 평범하게 설정한 일본 작품과 상이하며, 한국 작품은 남녀 입장의 격차를 두어 거기서 파생되는 갈등을 초월하는 사랑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현실에 맞춰서 내적인 갈등요소를 삽입하려는 일본 작품과 달리, 한국 작품에서는 외부 환경에서 파생된 갈등요소로 인한 극적인 전개를 선호했다. 직설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사랑고백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일본 작품에 비해, 한국 작품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담아낸 고백이 특징적이었다. 거절이나 이별위기가 닥치면 물러서려는 일본 작품에 반하여 한국 작품에서는 남자들이 사랑에 집착했었다. 여자의 직업도 사랑만큼 소중히 하려는 일본작품의 경향에 비해,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모두 행복한 사랑 성취로 결실을 맺으려는 한국 작품과의 차이도 분명했다.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한국의 대상 작품들은 일본

에서 인기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주된 시청자가 중장년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와 같은 한국드라마에 대한 취향도 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6개 작품의 연애스토리에 한하여 분석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일본에서는 그만큼 인기를 획득하지 못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연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關根智恵, "年層による差がさらに広がるテレビ視聴~2000~2011年の全國個人視聴率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pp.23-34, 2011(12).

[2] 安部安彦, "テレビドラマの「軸」なき変轉~20代女性のドラマ受容の考察~, NHK放送文化研究所年報, Vol.53, pp.95-118, 2009.

[3] 林香理, "中高年女性の日常とテレビ", 學士會會報(2005-III), pp.72-73, 2005.

[4] 유승관, "한국과 일본 수용자의 방송콘텐츠 수용 특성과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2호, pp.328-346, 2009.

[5] 채지영, "일본인의 한국 대중문화 소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드라마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Vol.11, No.4, pp.835-836, 2010.

[6] 김준숙, 김관태, "한국드라마에 대한 일본 대학생의 이미지 양상(1)-지역별에 따른 교차분석-", 일어일문학, Vol.29, pp.281-283, 2006.

[7] 三浦基·小林憲一, "セグメント化されたユーザーのニーズ~海外ドラマ調査から~, The NHK monthly report on broadcast research, Vol.57, No.8, pp.41-43, 2007.

[8] 茂木健一郎, "韓流ドラマは何故うける?, 嗜み, No.15, pp.37-40, 2012.

[9] 檜山珠美, "「韓國ドラマ」「K-POP」の秘密を探る", GALAC, pp.14-18, 2011(12).

[10] 安部裕子, "リアリティーよりトキメキに徹した演

出", pp.22-24, 2011(12).

[11] <http://artv.info/ar.htm> (Audience Rating TV)

[12] <http://hanryu10.jp/about/> (한국드라마대상)

[13] <http://koread.tank.jp/> (K-MANIA)

[14] Syd Field, "素晴らしい映畫を書くためにあなたに必要なワークブック", フィルムアート社, pp.48-196, 2012.

[15] 內閣府, 若者の結婚や家庭觀に關する調査結果, 2011.

[16] <http://nendai-ryuukou.com> (연대유행)

[17] 森岡正博, 最後の戀は草食系男子が持ってくる, マガジンハウス, pp.17-21, 2009.

[18] 牛窪恵, 草食系男子「お譲マン」が日本を変える 講談社, pp.44-45, 008.

### 저 자 소 개

나고마리(Mari Nago)

정희원



- 1993년 3월 : Keio University 법학부 졸업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일어일문학과(문학 석사)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일어일문학과(문학 박사)
  - 2005년 4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일본대중문화